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다뤄야 하나?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의 현실과 방향성' 포럼

- 일시 | 2016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 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 협력 |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여학우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순서

사회: **김애희**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2:00 (5분)	인사말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2:05 (10분)	결과 브리핑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 실시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김애희 사무국장	p03
	별첨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설문지		p17
2:15 (15분)	발제 1.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 진단과 대책	김승호 교수 (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	p19
2:30 (15분)	발제 2.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희 교수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p23
2:45 (10분)	질의 응답		김애희 사무국장	
2:55 (50분)	토론	사회: 최소영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패널: 발제자 2인 김성수 목사(예드림교회, 호모북커스 대표) 이성지 회장(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임하나 회장(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조은애 회장(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여학우회)		p37
	참고 자료	단체 소개		p38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 실시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김애희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1. 조사 취지

성폭력 예방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처벌과 같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1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의무로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교회 내부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5년간 강간과 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가운데 성직자가 1위를 기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까지 했으나, 교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교회 조직이 목사와 장로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과두제적 속성을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은폐되기 십상이고, 사건화 되더라도 처벌이나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인들의 영적 발달과 성숙을 도와야할 위치에 있는 목회자의 성에 대한 관점과 이해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폭력적 상황을 인지하고 사건 해결에 개입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서야 할 경우도 많다. 또한 설교나 목회 운영에 목사 개인이 가진 편견과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

다. 우리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도로 인해 다양한 폭력적 상황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교 양성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성윤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성폭력에 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신학교 내에서 보다 실제적인 실천과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해본다.

2. 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 11월 11일(수) ~ 3월 17일(목)
- 조사 대상: 전국 교단 산하 31개 신학대학원
- 조사 방법: 공문을 통해 질의 후 교학과 관계자로부터 답변 회수

2) 조사 내용

교육과정	학생 수
	관련 교육 개설 여부 및 강좌명
	개설 방식
	개설 계획 여부
반성폭력 예방노력	관련 교육 실시 여부
	교육 대상
	교육 회기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상담 및 교육기구 운영 여부
	학내 자체 처리 기준 내용
	기구 미설립 사유
	기구 개설 계획 여부

3) 조사 대상

① 교단별 분류(총 31개 학교)

▶ 교단 산하에 목회학석사과정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였고, 총 17개 학교가 응답하였다(밑줄 표시로 구분).

▶ 이 가운데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은 기감(1931년), 기장(1955년), 예장 통합(1994년 인정), 기성(2004년), 예성(2003년), 기침(2013년)이 있고, 예장 고신과 예장 합동, 예장 합신은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외 예장 대신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예장 백석(2011년)과 통합하면서, 여성 안수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 강사 배제문제를 비롯해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여성 입학을 차단하기로 해 문제가 된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예장 고신 산하 고려신학대학원은 응답을 거부하였다.

4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다뤄야 하나?”

교단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하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성)
수	1	3	4	1
학교명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	한세대학교신학대학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교단	기독교한국루터회 (루터)	기독교한국침례회 (기침)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나사렛)	대한성공회 (성공회)
수	1	2	1	1
학교명	루터대학교신학대학원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나사렛대학교신학대학원	성공회대학교신학대학원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합동)
수	1	3	7	4
학교명	고려신학대학원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부산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광주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대구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칼빈대학교신학대학원

교단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예성)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수	1	1
학교명	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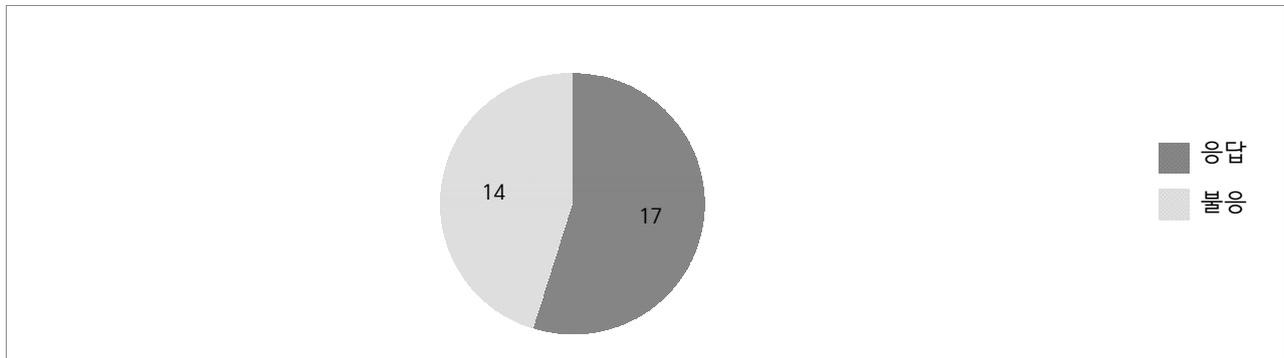
4) 응답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응답 현황

▶ 총 14개 학교에서 실태조사에 대해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업무처리로 인해 바빠다', '응답해야 할 이유가 없다' 등이 주된 사유였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조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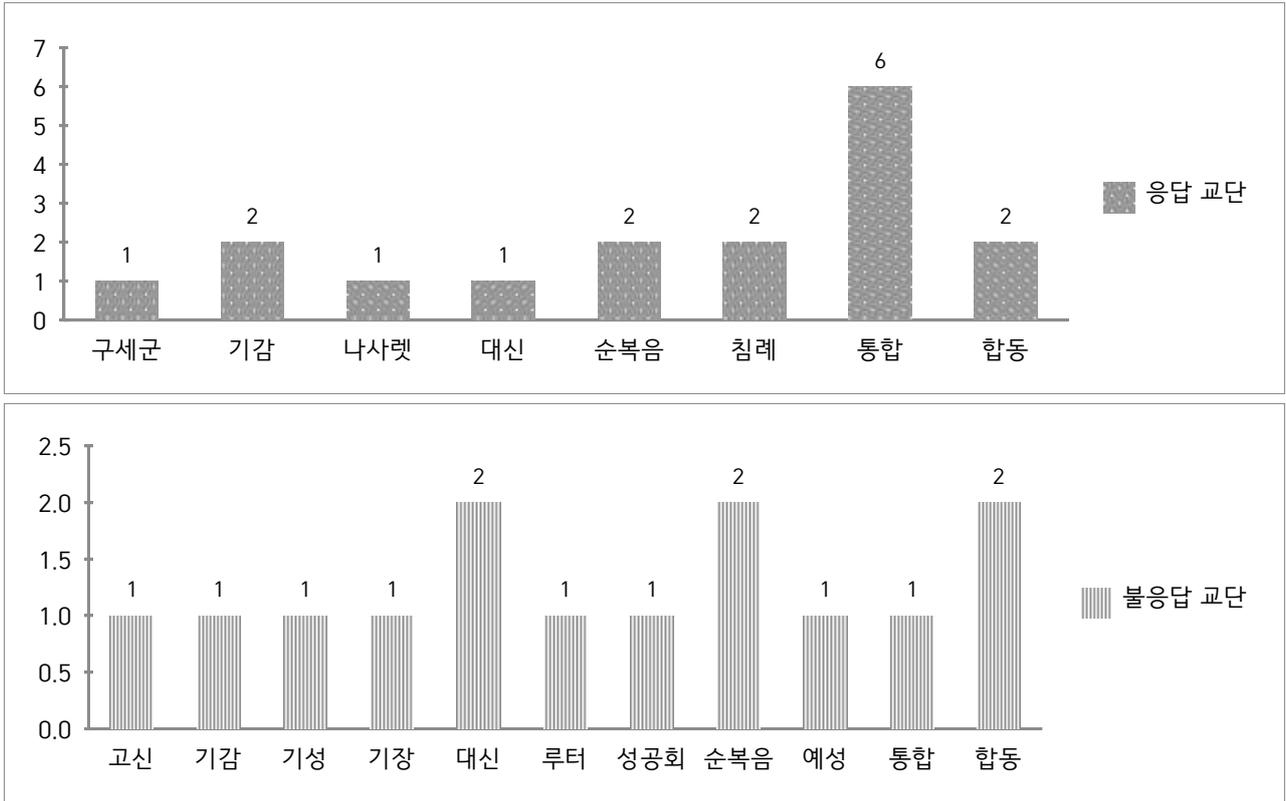
이 교단과 관련성이 없는 외부 단체였기 때문에, 응답률이 저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답변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과 편성에 개입하고 기획 전반을 책임지는 학과장 교수에게 해당 질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답변이 누락되기도 했고, 대부분 관련 주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교학처 담당자들의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응답	불응	총계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감신)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구세군) 나사렛대학교신학대학원(나사렛) 대구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대구신) 대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대전신)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목신)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백신) 서울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서울장신)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성서침례) 순복음대학원대학교(순복음)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영신)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장신)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침신) 칼빈대학교신학대학원(칼신) 한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한영신)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한일장신)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호신)	고려신학대학원(고신) 광주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광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대한신학) 루터대학교신학대학원(루터) 부산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부산장신) 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성결신) 성공회대학교신학대학원(성공회)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성산효)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안양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신) 한세대학교신학대학원(한세신)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한신)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협신)	
17	14	31



② 교단별 분류

응답		불응		총계
구세군	1	고신	1	
기감	2	기감	1	
나사렛	1	기성	1	
대신	1	기장	1	
순복음	2	대신	2	
침례	2	루터	1	
통합	6	성공회	1	
합동	2	순복음	2	
		예성	1	
		통합	1	
		합동	2	
17		14	31	



③ 응답 학교 관계자

번호	학교	담당자 명	담당자 직책
1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최**	교무과 과장
2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김**	사무처 행정담당관
3	나사렛대학교신학대학원	김**	신학대학원장
4	대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황**	신학대학원 학과장
5	대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전**	직원(대학원 담당)
6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전**/학생상담센터	조교(교학업무 담당)
7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김**	직원
8	서울장신대학교신학대학교	고**	직원(수업·학적·교수학습팀 담당)
9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박**	직원
10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채**	직원(교학처 주임)
11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오**	직원(수업 및 학적 담당 계장)
12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안**	직원(교학실)
13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이**	직원(수업 및 학적 담당)
14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강**	교목실장
15	한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전**	직원(담당 계장)
16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정**	직원(담당 실장)
17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전**/이**	교무처 과장(신대원·대학원)/학생 실장

3. 실태조사 결과

1) 설문 내용

가. 교육과정에 관하여

가-1. 전체 학생 대비 여성 원생의 수

▶ 해당 내용은 교학과를 통해 2016년 4월에 집계하였고, 조사 결과 많은 경우 50%에서 3,40%까지 여학생이 목회학석사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여성 남성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① M.div 학생 수 (2016년 4월 기준)

번호	학교	여성	남성	총	여성비율%
1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23	311	434	28
2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28	48	76	37
3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68	700	968	28
4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13	218	331	34
5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70미만	70미만	137	-
6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85	167	252	34
7	대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39	49	88	44
8	서울장신대학교신학대학교	42	150	192	22
9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330	590	920	36
10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11	363	474	23
11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4	7	11	36
12	순복음대학원대학교	35	44	79	44
13	한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4	39	63	38
14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3	3	6	50
15	나사렛대학교신학대학원	34	61	95	36
16	대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7	128	165	22
17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답변 거부			

② Th.m 학생 수 (2016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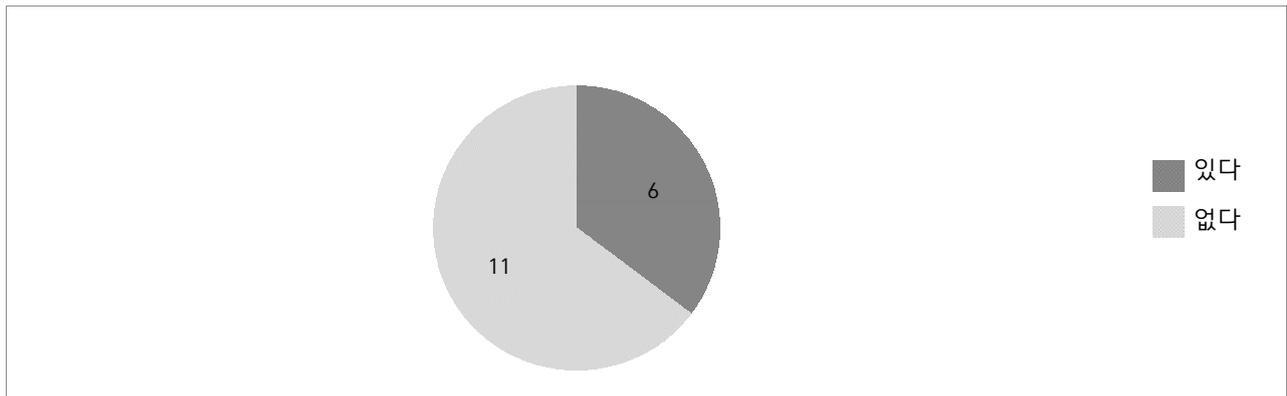
번호	학교	여성	남성	총	여성비율%
1	감리교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59	179	238	25
2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32	114	146	22
3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39	142	181	22
4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0	25	35	29
5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6	18	24	25
6	영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4	11	15	27
7	대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4	7	11	36
8	서울장신대학교신학대학교	3	21	24	13
9	백석대학교신학대학원	41	29	70	59
10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3	35	38	8

11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4	14	18	22
12	순복음대학원대학교	1	1	2	50
13	한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5	9	14	36
14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7	28	35	20
15	나사렛대학교신학대학원	2	14	16	13
16	대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	13	16	19
17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답변 거부			

가-2. 성윤리 등 관련 교육 개설 여부

▶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6개 학교 중, 정규 강좌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감신대, 대구신대, 장신대였다.

유무	있다	없다	총계
학교 수	6	11	17
내용	감신 대구신 서울장신 영신 장신 칼신	구세군 나사렛 대전신 목신 백신 성서침례, 순복음 침신 한영신 한일장신 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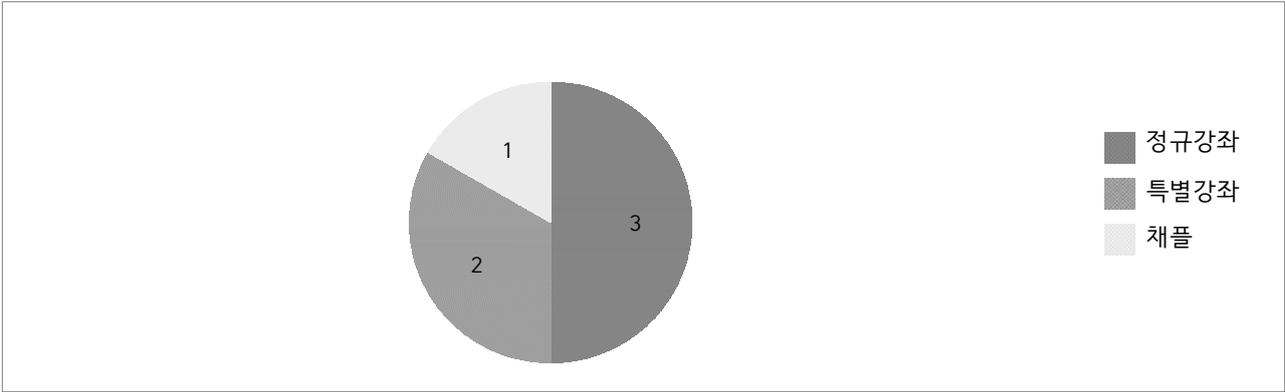


가-3. 교육 내용

▶ 감신대와 대구신대, 장신대 등 3개 대학에서 여성 사상사나 젠더 관련 교육이 정규강좌로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명칭

번호	학교	강좌명	강좌 개설 방식
1	감신	여성학과철학 여성과사상 여성과정치사상 여성과역사세미나 종교와젠더세미나	정규강좌
2	대구신	기독교윤리(성윤리포함)	정규강좌
3	서울장신	대학성희롱예방교육 대학성폭력예방교육 대학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특별강좌
4	영신	성희롱예방교육	특별강좌
5	장신	크리스천가정과성윤리	정규강좌
6	칼신	채플시간에 여성가족부 추천받은 강사를 관련 교육을 실시.	채플



[참고자료]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분석

▶ 신학대학원 교과과정 내에 성윤리 관련 강좌나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학교 홈페이지에公示된 2016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수집·분석하였다. 미응답 학교를 포함한 31개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 주제 중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11개 대학원에 불과했다. 편성 목적과 이해, 교육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방향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자료 검토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강좌 주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가. 개설 학교 현황(총 11개 학교)

번호	학교명	주제
1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학과철학, 여성과역사세미나, 여성과사상, 페미니스트윤리세미나, 여성신비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여성학
2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성윤리, 생태여성신학
3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속의여성, 여성신학, 크리스천가정과성윤리, 선교와여성사역, 기독교여성교육사
4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여성과목회(2년에 한번 개설)
5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성서에나타난여성관, 기독교윤리와페미니즘, 여성신학, 기독교성윤리,
6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기기독교와여성, 여성신학, 기독교페미니즘윤리, 사랑·성·몸그리고윤리
7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성평등과교역, 여성신학개론, 여성신학섹슈얼리티, 생태여성신학, 여성신학방법론, 여성신학과삼위일체론, 구약성서의 여성사, 신약성서의 여성사, 여성신학과포스트모던담론, 여성신학과가족담론, 여성신학의해석학, 여성신학의교회론, 여성신학과그리스도론, 여성신학과하나님언어
8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교회여성사역
9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과교회
10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신학
11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신학

나. 개설되지 않는 학교(총 19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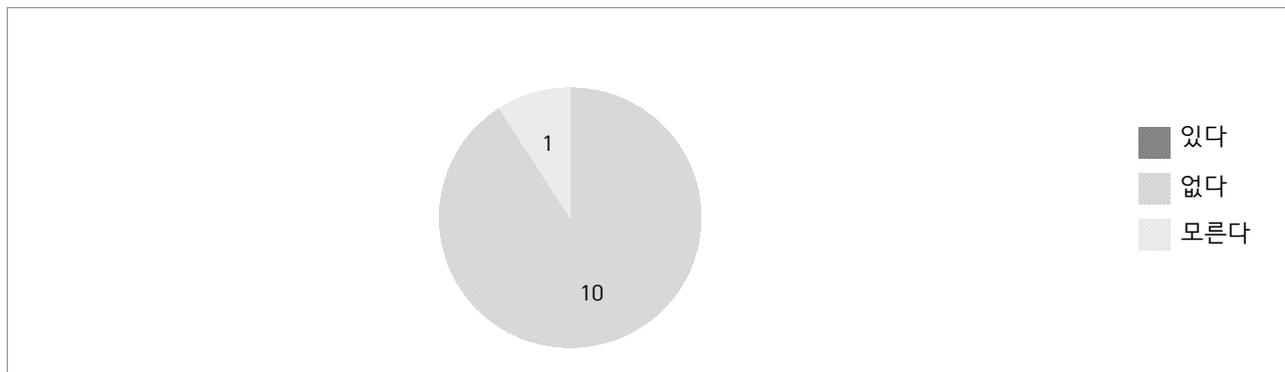
번호	학교	번호	학교
1	고려신학대학원	11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	광주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2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3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신학대학원	13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4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14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5	대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5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6	대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6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7	대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7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8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18	한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9	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	19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 확인 불가 학교(미 게시)

- 순복음대학원대학교(총 1개 학교)

가-4. 향후 개설계획 여부(미개설 학교 대상)

개설 유무	있다	없다	모른다	총계
학교 수	-	10	1	
해당 학교	-	구세군 나사렛 대전신 목신 백신 성서침례 순복음 침례신 한일장신 호신	한영신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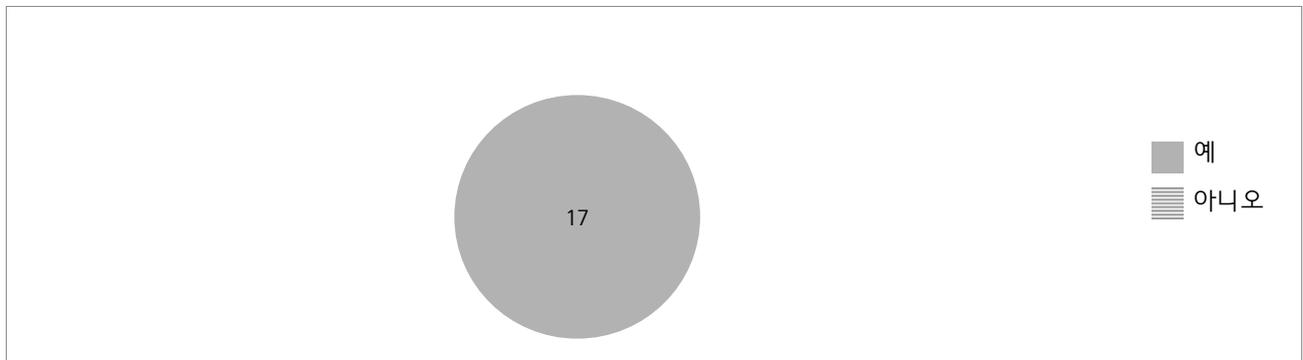


나. 반성폭력 예방 노력에 관하여

나-1.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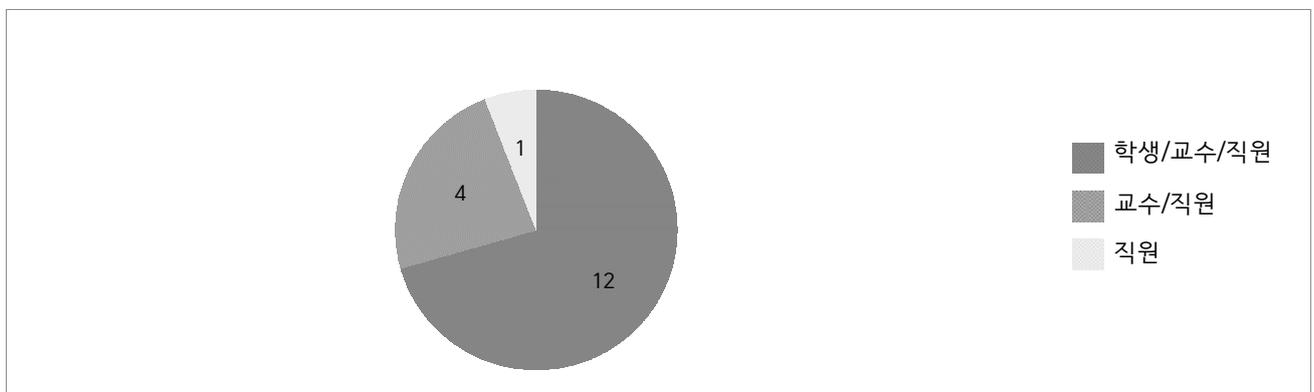
▶ 17개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감신은 현재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학생과 교수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피해자보호법(제5조)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무	예	아니오
학교 수	17	0
해당 학교	구세군 나사렛 대구신 대전신 목신 백신 서울장신 성서침례 순복음 영신 장신 침신 한영신 한일장신 호신 칼신 감신	-



나-2. 교육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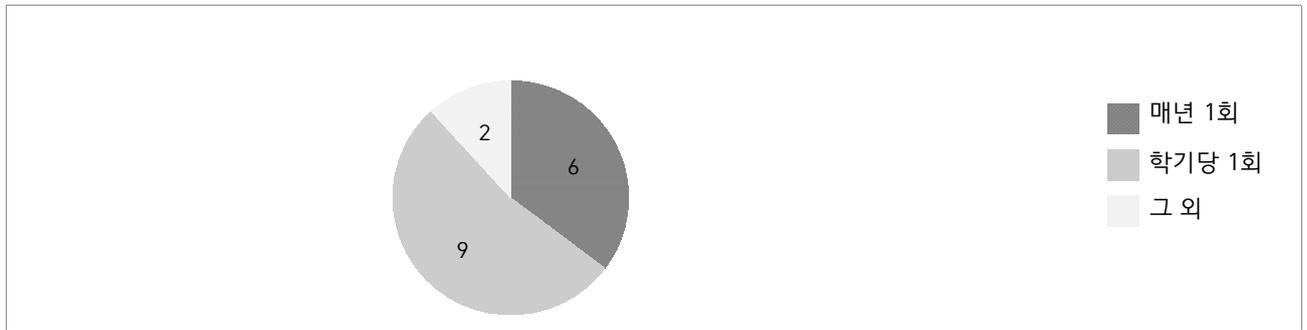
교육대상	학생/교수/직원	교수/직원	직원	총계
학교 수	12	4	1	
해당 학교	구세군 나사렛 대구신 대전신 서울장신 성서침례 순복음 영신 장신 칼신 한일장신 호신	목신 백신 침신 한영신	감신(2016년부터 교수 직원 학생 실시 예정)	17



나-3. 교육 회기

12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다뤄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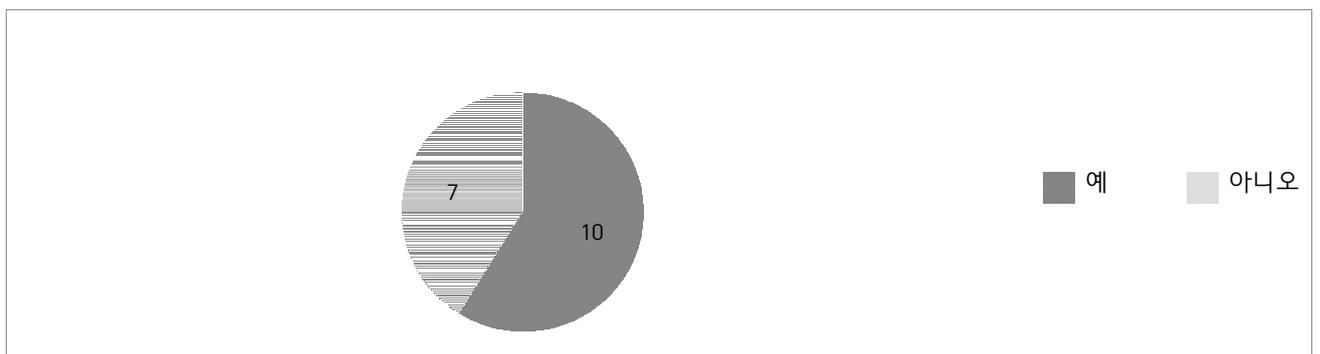
교육회기	매년 1회	학기당 1회	그 외	총계
학교 수	6	9	2	
해당 학교	대구신 영신 서울장신 성서침례 장신 호신	감신 나사렛 대전신 목신 백신 순복음 칼신 한영신 한일장신	구세군(연 2회-성교육) 침신(학기당 2회)	17



나-4. 성희롱·성폭력 대처 매뉴얼(기준 및 절차) 실시 여부

▶ 학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대부분 학내 상담센터나 학칙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침에 의거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상담센터의 처리 원칙이나 학칙 규정이 어떠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전제되어야, 그에 대한 분석과 제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유무	예	아니오	총계
학교 수	10	7	
해당 학교	구세군 나사렛 대전신 목신 서울장신 성서침례 순복음 침신 칼신 호신	감신 대구신 백신 영신 한영신 장신 한일장신	17



나-5. 학교별 반성폭력 대응 절차 상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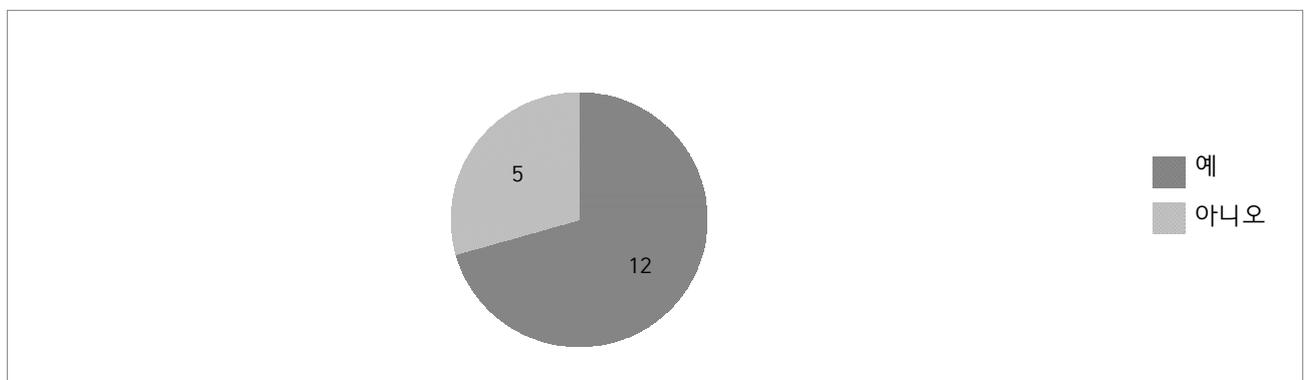
구세군	신고 즉시 상담, 위원회 소집, 의결 후 조치(민·형사규제, 학칙에 의한 징계, 사과 봉사 배상, 기타 조치) 단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사렛	상담센터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전임 교수 2명과 상담원 4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성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사안도 상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대구신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한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대전신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고 답변하였다.
목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성평등상담소(가칭: 변경예정, 현 성희롱·성폭력상담소)가 교내에 설치되어 있어 사건 접수와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교내 규정에 명시한 바에 의거해 조치(고충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므로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장신	학사규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고충의 신청,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결과의 보고, 조사의 종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서침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지침 제 8조 상담 및 조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순복음	성희롱 발생 시 고충 접수(고충상담원)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징계 조치 -> 결과 통지 -> 사후재발 방지 단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장신	학생경건위원회에 보고 후 조치하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침신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의뢰하여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칼신	여성가족부 지침서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일장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희롱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성폭력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호신	학칙 제 44조 5항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 된다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고 답변하였다.

나-6. 상담 및 교육전담기구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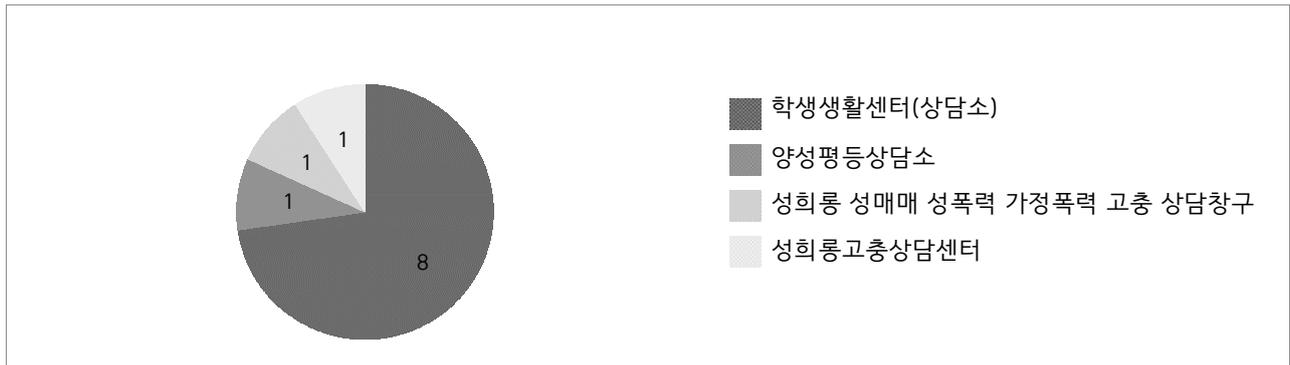
▶ 12개 학교에서 상담이나 조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생활센터에서 해당 기능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세군과 호남신대, 성서침신대에서 양성평등상담소나 성희롱고충상담센터로 명명된 기관을 운영하여, 사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유무	예	아니오	총계
학교 수	12	5	
해당 학교	구세군 나사렛 대전신 목신 백신 서울장신 성서침례 영신 장신 침신 한일장신 호신	감신 대구신 순복음 칼신 한영신	17



나-7. 학교별 상담실 운영 사례(명칭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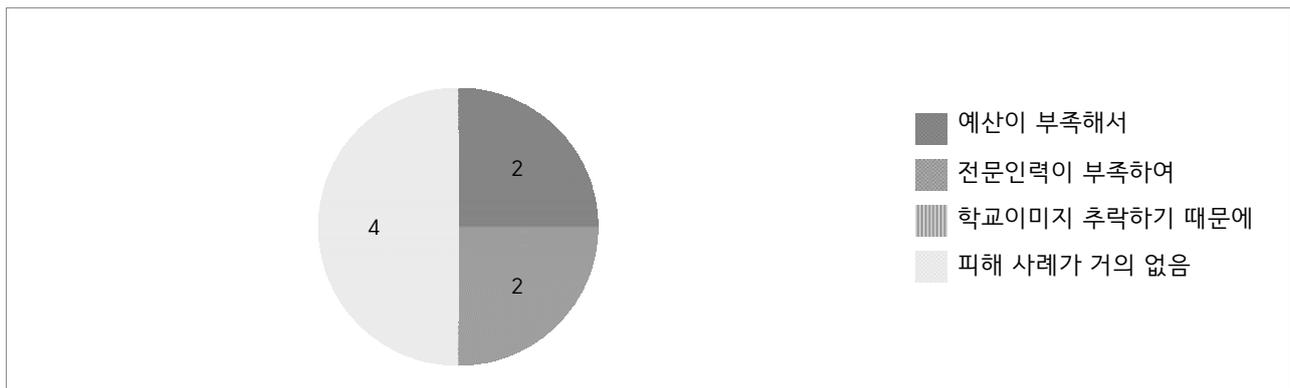
명칭	학생생활센터(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고충 상담창구	성희롱고충상담센터	총계
학교 수	9	1	1	1	
해당 학교	나사렛 대전신 목신 서울장신 영신 장신 백신 침신 한일장신	구세군	성서침례	호신	12



나-8. 대책(상담)기구 미설립 사유(중복 대답)

▶ 전담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사유로 피해사례가 거의 없어 추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이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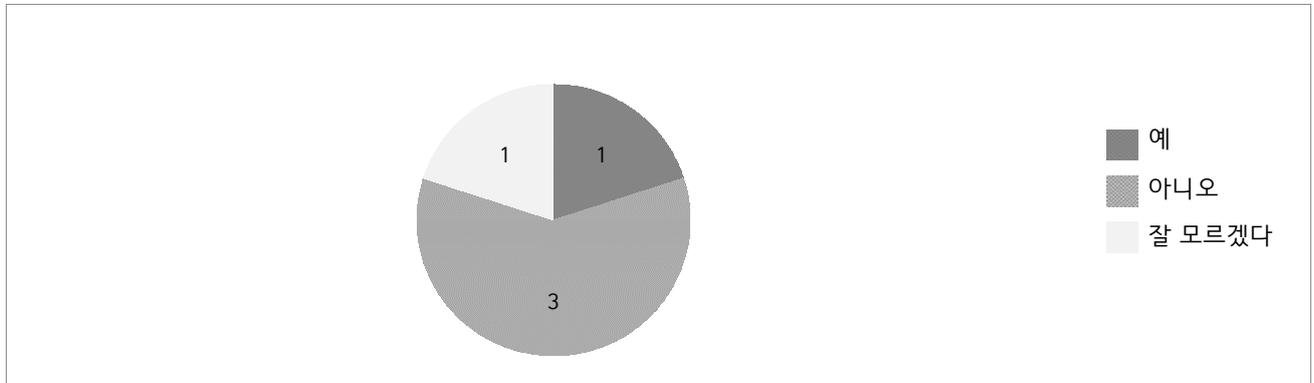
내용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학교이미지 추락하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거의 없음
학교 수	2	2	-	4
해당 학교	감신 한영신	감신 칼신	-	대구신 순복음 칼신 한영신



나-9. 향후 대책(상담)기구 설립 계획 여부

▶ 앞서 2016년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감신대는 기구 설립 역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신대와 순복음신학대, 한영신대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계획 유무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총계
학교 수	1	3	1	5
해당 학교	감신	대구신 순복음 한영신	칼신	5



1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 진단과 대책

김승호 교수 | 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

1. 목회자 성범죄율이 높은 이유¹⁾

1) 신학대학원에서의 성윤리 교육의 부재

현재 중진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원 재학 당시 성윤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신학대학원 교육이 주로 신학적·교리적 지식 함양에 편중되었고, 그런 교육 자체가 목회자의 성적탈선을 방지하는 최선의 교육이라는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힘의 차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힘의 차이를 이용해 목회자가 교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 교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목회자의 교인에 대한 성폭력 현상이다. 둘째, 경계위반(boundary violation)의 위험으로, 이것은 목회자가 교인에게 자신을 친구나 동료로 수용하게 하고 이를 격려할 때, 원래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가 모호해지고, 성적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성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병리적 차원

1) 김승호, 『목회윤리』 (대구: 하명출판, 2011), 132-135. 본고에서는 다양한 원인들 중 세 가지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목회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나 낮은 자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성 동료들과의 적절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신학대학원 입학면접 시에 지원자 개개인에 대해 이런 점들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또한 신학대학원의 경건한 분위기(?)로 인해,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상담하거나 치료받을 기회는 더더욱 없다. 결국 개인에게 있는 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여 목회 현장에서 적절한 환경에 노출되면,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범죄 발생 시 목회자 징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목회자 성범죄 발생 시 징계제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 국내 목회자들 중에서 성적탈선에 연루된 목회자들 상당수가 상식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징계가 당회나 노회 및 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회성장시대에는 담임목사 부임 후 교회를 성장시킨 경우에는 재정유용이나 성적탈선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회 내의 이런 인식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적 탈선에 대해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하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실태조사 자체에 대한 소견

1) 신학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조사(p.10)는 신학대학원 교과과정에 배정되어 있는 성평등, 성윤리(여성관련 과목 포함) 과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목들에 대한 조사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유의미한 조사를 위해서는 교과과정표에 나와 있는 과목명들 소개를 넘어서 최근 5~10년 이내에 실제로 그 과목들 중에 몇 과목이 몇 회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가-3. 교육내용(p.9) 성윤리·성평등 관련 개설 강좌명에 대한 질문에서, ‘대구신, 기독교윤리(성윤리 포함), 정규강좌’ 라는 강좌명이 소개되어 있다. 실제로 ‘기독교윤리’ 과목은 다른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과정에서도 개설되어 있는데, 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런 사실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기독교윤리 과목의 내용 중에 성윤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3) 실태조사에 나오는 각 신학대학원 교과과정에 배정되어 있는 과목들 중 명시적으로 성윤리, 성평등을 다루는 과목들 이외에도, 성윤리 및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목회윤리’ 과목에도 목회자의 목회 직 수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상당부분 다루고 있다.

4) 가-4. 향후 개설계획 여부(p.11) “(성윤리 성평등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1년 내에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없다’고 답변한 학교 수가 10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응답자 대부분은 해당 신학대학원의 직원들로서, 이들은 신학대학원 과목의 개설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의아하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신학대학원장’이나 ‘대학원 위원회’에 질문해야 보다 정확한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의 한계

- 성윤리 과목 개설의 실제적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

신학생·목회자가 신학적·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성적 탈선이 결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적탈선을 저지른 목회자들 중 상당수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이들도이다. 이것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신학적·신앙적 준비만 되어 있으면 목회자의 성적탈선이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윤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성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성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토론할 기회도 거의 없다 보니²⁾,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성적 유혹을 예방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졸업 후 전임사역을 시작하면 더더욱 성윤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기 힘들어지고, 이런 현실이 목회자의 성적탈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윤리’ 과목 및 관련과목(목회윤리 등)의 정기적인 개설이 필요하며, 특히 목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회자의 성적탈선 및 성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토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추가 조사 및 향후 연구주제

- 1) 이번 실태조사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성윤리·성평등 교육실시 여부와 교육내용, 문제 발생 시 대책 마련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신학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뿐 아니라, 교수(직원)과 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학대학 내에서의 구체적인 예방대책이나 지침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각 신학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규과목 및 특별강좌 등을 구분하여) 성윤리·성평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 3) 성윤리의 교육내용에 관한 것으로, 국내외의 일반대학과 신학대학 그리고 다양한 목회현장에서 발생했던 성희롱·성폭력의 케이스들을 수집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각 신학대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각 교단 총회 산하의 신학교육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교단 산하 신학대학들은 교단 총회 산하 신학교육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교단의 신학교육부와 협력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실태조사와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각 교단 내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2) 신학대학원 학생들 서로 간에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교역자’, 혹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신학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성윤리를 포함하여 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내면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6. 성윤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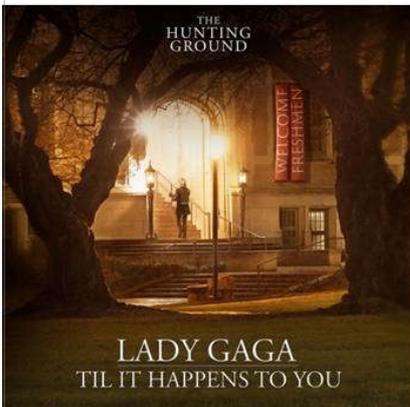
- 1) 각 교단은 신학대학원 과정에 성윤리 과목 개설을 의무화하고, 이 과목의 이수를 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 2)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성윤리과 관련된 특강, 포럼, 세미나, 개인상담 등 성윤리에 대한 보다 높은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3) 성윤리 교육은 보다 광의적 의미로서의 영성훈련과 병행해야 한다. 성윤리 교육이 좁은 의미에서의 성과 관련된 측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훈련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해될 때 보다 바람직한 영성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성윤리 교육은 단지 목회자의 성적탈선을 예방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일반, 동성애, LGBT학, 여성학, 및 성적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현 시대에 제기되는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와 대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3) 김승호, 『목회윤리』, 158-161. 참조: 이외에도 이 책의 pp. 135-140.에서는 "목회자의 성적탈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영성과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통합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야담과 하와가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창2:25)는 사실은 영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에덴동산에서 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예시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원래 영성과 성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인데, 인간의 타락 이후 긍정적 의미로서의 영성과 부정적 의미로서의 성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도식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억압된 영성이 참된 기독교 영성이 아니듯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변도 역시 기독교적 성 이해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영성과 성에 대한 통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2) 목회자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광의의 차원에서 동료그룹 및 멘토와의 정기적인 만남 역시 중요하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건강한 부부관계는 영성적 차원의 금욕훈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 유지는 영성적 차원의 금욕훈련과 균형을 이룰 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목회자가 이성 교인들과의 건전한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정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선한 관념(기독교적 관념)과 배척해야 할 관념(비기독교적 관념)을 구분하고 의도적으로 전자를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이미 자신이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도적인 선택과 그 선택에 근거한 의도적인 행동이 이성 교인과의 만남에서도 잘못된 관계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성윤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 교단적 차원). 예를 들면, James MacDonald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성윤리 지침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나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나 혼자서 내 아내나 나의 직접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닌 여성과 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폐쇄된 공간에서 여성과 상담하지 않는다. 3) 나는 홀로 호텔에서 밤을 지내지 않는다. 4) 나는 내 아내가 내 곁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흔히 공개적으로 내 아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말한다. 5) 인격이나 행동을 칭찬하고 머리 장식이나 옷을 칭찬하지 않는다.

2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희 교수 |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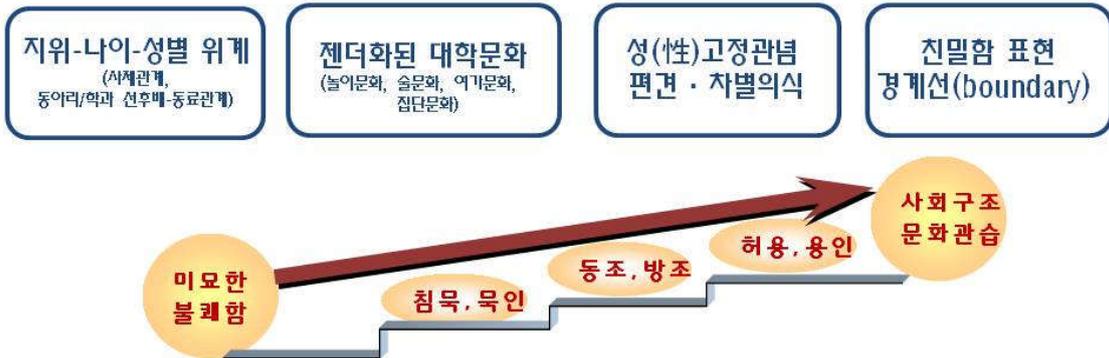


- 대학 내 성폭력 예방
- 대학 내 성폭력 대응
- 반성폭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대학 내 성폭력의 발생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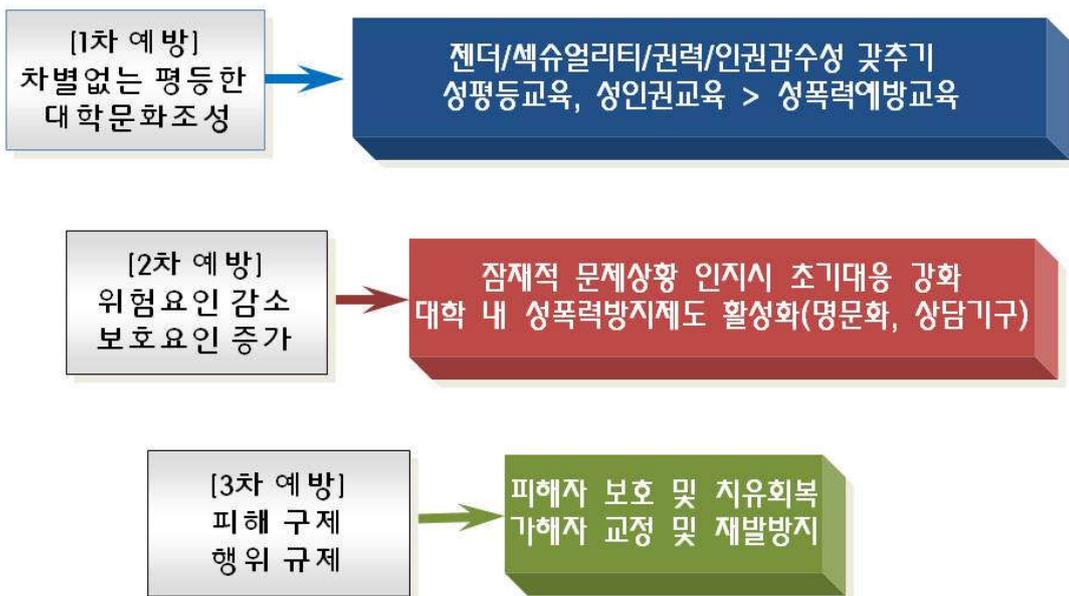
성폭력·성희롱은 단순히 가해 행위자나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규범 및 성별 위계관계와 맞닿아
성폭력·성희롱을 허용하는 사회구조 전체의 맥락 속에 위치함.

대학의 자유로움과 평등함 속에서도
학내관계에 존재하는 힘의 영향, 개인에게 내면화된 왜곡된 성통념과 성적 대상화의 일상관행들,
상대방의 허락·동의없이 일삼는 성적 언사를 친밀함의 표현이라 여기는 성의식과 성태도,
재미삼아 장난삼아 놀이삼아 개인의 물리적·심리적 경계(boundary)를 침범하는 집단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학은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출처: 김영희,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대학교육 Vol.189, 2015. 07-08-09>

대학 내 성폭력, 무엇을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출처: 2007년 영국정부의 성폭력과 학대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실천 계획,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과정자료집 >

대학 규정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개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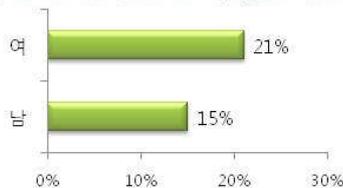
구분	학교수 (비율)	특성
성폭력만 명시	69 (43.1%)	넓은 의미의 성폭력만 명시되고 있으며, 성희롱의 의미를 광의의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킴
성폭력·성희롱 명시	65 (40.6%)	성폭력은 범죄행위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성희롱은 현행법의 정의와 유사하거나 성폭력보다 더 넓게 성희롱을 정의하기도 함
성희롱만 명시	9 (5.6%)	성희롱만 명시, 성희롱은 현행법의 정의와 유사하거나, 성희롱에 성폭력의미를 포괄 또는 법적정의 외 다른 요소 포함
기타	17 (10.7%)	개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거나 별도 기재하기도 함

<출처: 김계현외(2005).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연구.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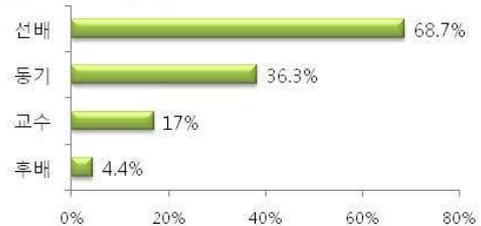
대학생 성폭력 성희롱 발생 현황

전국 100여개교 2505명 대학생 2014년 12월 모바일(surveymonkey.com & add2papper.com) 설문결과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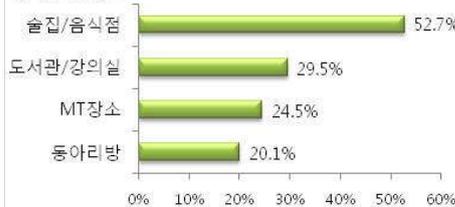
▶ 학내 성 피해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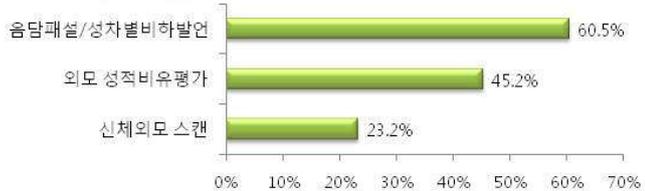
▶ 피해자-가해자 관계



▶ 발생장소



▶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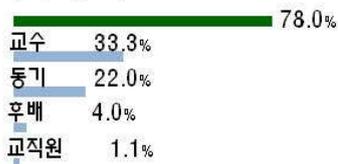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정보신문 2014.12.11>

**▶ 4학년에서 교수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1학년에 비해 3배
교수연구실에서 성 피해 경험했다는 응답이 2배로
교수와 학생의 친밀도가 증가할수록 성희롱 성폭력노출 가능성 높아져!!**

대학생 성폭력 성희롱 발생 현황

대학생 768명 설문결과, 23.0%가 피해경험. 여성(33.3%)이 남성(6.8%)보다 5배 가량 많아.

선배가



술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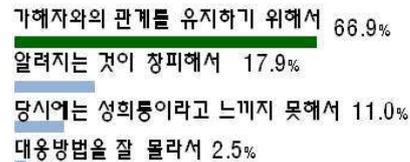
(성적)농담으로



그냥 참고 넘겼다



왜?



<출처: 취업포털 커리어, 2012>

대학원생 (성)인권 침해 발생 현황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대학원생 2354명, 2014년 6월 5일 ~ 6월 10일, 복수응답>

Q1. 대학원 생활중 중강모임, 연구실 회식, 논문(졸업작품)지도나 프로젝트 수행중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Q2. 대학원 생활 중 성별, 신체, 외모에 대해 조롱, 모욕, 성적 비유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Q3. 대학원 생활 중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폭언, 욕설, 모욕감을 느끼는 언행, 구타 등)



<출처: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2014>

대학원생 (성)인권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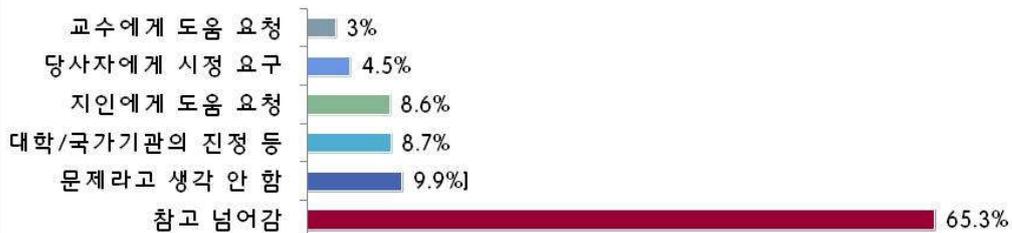
- "여학생의 석사 디펜스 자리에서 정장을 입고 온 여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너는 그렇게 입으니까 도우미 같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연구실의 남학생이지만, 옆에서 듣는 것도 불쾌합니다
- 23세, 남, 공학계열 -
- "술자리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외모로 등급을 매긴 후 놀려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 26세, 여, 공학계열 -
- "논문 심사 날 다과를 준비하였는데 '이런 싸구려를 가져오냐, 넌 논문 두 번 다시 못 쓸 줄 알아' 라며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폭언과 폭행 위협까지 가하였습니다."
- 31세, 남, 의약계열 -
- "여자를 공부시킨 경험이 몇 번 없으며 성 차별성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 26세, 여, 예체능계열 -
- "졸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승인 안 해주면 너는 졸업 못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하시고 다양한 폭언들을 합니다."
- 25세, 여, 자연계열 -
- "늘 그래왔던 분위기 속에서 인권침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29세, 여, 예체능계열 -

<출처: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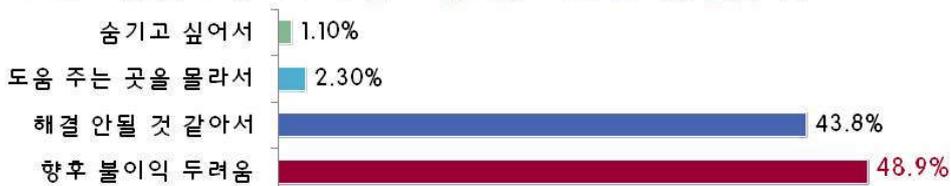
대학원생 (성)인권 침해 대처 현황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대학원생 2354명, 2014년 6월 5일 ~ 6월 10일, 복수응답>

Q. 위와 같은 부당처우를 경험한 경우 대처 방법은? (단일선택)



Q. 위와 같은 부당처우에 참고 넘어간 이유는? (단일선택)



<출처: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2014>

대학 내 성 피해 상담 특성

권력관계 및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 요청 건수 증가

OT/MT/학과/동아리활동시 학생간의 음주동반된 원치않는 성적 접근(예: 성추행)

공동체(학과/동아리/학생회) 초기 네트워킹, 경험, 지식 취약한 학생이 주로 피해

사귀거나 호감단계의 사건(예: 강간), 헤어짐 후 사건(스토킹, SNS이용 침해) 증가

행위자-피해자간의 위계관계가 있는 사건 증가(예: 수업, 대학원, 연구소, 실험실)

외국인학생/교환학생 등 지위가 불안정한 학생들이 피해자/행위자 되는 사건

도서관, 화장실, 기숙사, 자취방, 야간학교길, 학교주변 후미진 곳 등에서의 사건

피해자는 학습권, 생활권(다양한 활동과 지지적 관계망) 침해 심각

<출처: 김영희, 대학성희롱 규정에 근거한 사건처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자료집, 2014>

대학 내 성폭력 성희롱의 특성

대학은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수성

학생-학생간 사건은 현행 성희롱 구제법령(고용관계)의 보호범위 밖에 있음

교수-학생간 사건은 그 피해가 학업/학점상의 불이익에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중합,
신고인-피신고인의 지위차이로 인해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성희롱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갑을관계에서의 갑의 절대적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제기하기를 두렵게 만들어, 피해의 정도가 심화됨

다양한 구성원(교수/직원/학생)이 교육/행정/생활하는 관계맺기의 방식은 다양함,
성폭력 성희롱의 발생맥락과 시간, 장소, 피해자 대처방식, 주변인 대응도 다양함,
특히 학생집단은 계속 변동되면서 문화 또한 다양하고 유동적임

이러한 다양성과 맥락의 복잡성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컨텐츠 개발과
사건 발생시 접근방식 개발을 어렵게 함

<출처: 김보미, 학생들은 왜 학교가 아니라 경찰을 선택하였는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김영희, 국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과 제언, 2015년 성폭력추방기간 심포지엄, 여성가족부, 2015.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성희롱 진정 현황

2012. 6월까지 진정사건 중 **교육기관 사건 10.7%**에 해당, 이 중 **대학 사건 49.6%**
언어적 성희롱 ~ 형법상 성폭력 범죄 구성하는 것 까지 행위 정도의 범주 다양
 교수-학생, 교직원-학생, 조교-학생, 교수-직원 등 당사자 유형 다양(학생-학생 진정불가)

<주요기관별 진정 접수 현황>

접수 년도	합계	경찰	경찰	구급 시설	군대	기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보호 시설	교육 기관	공공 기관	사 법인	개인 회사	단체	사인	요양 시설	기타
2009	166	-	4	-	-	3	12	1	17	5	69	31	1	10	-	13
2010	210	1	4	1	-	7	11	-	24	12	78	38	9	18	-	7
2011	216	2	1	3	4	7	5	-	17	6	64	32	7	57	5	6
2012	228	-	3	3	-	3	10	-	21	12	120	24	5	9	8	10
2013	240	-	2	1	5	4	9	-	25	6	42	37	18	69	4	18
2014.7	135	1	2	-	-	3	6	1	19	3	46	24	3	20	1	6
합계	1,195	4	16	8	9	27	53	2	123	44	419	186	43	183	18	60

<출처: 이수연, 대학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 개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 권고 사례의 특징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반영된 전형적인 교수-학생간 사건이 가장 많음

진정인은 피해자도 있지만 피해자 이외의 대학구성원(학내대책위, 노조, 대학총장, 제3자 제보후 직권조사로 연결된 사건)도 상담수임

이는 대학 내 성희롱이 피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내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문제해결 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함

발생장소와 상황은 식사/회식장소/모텔 등 교외 장소도 있지만,
 교수-학생간 사건은 강의실(수업/시험 중), 연구실 등 교내의 공적 장소에서 발생함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공공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위험 높음

행위자는 사실관계를 부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별다른 증거 없음**

목격자, 친구/동료, 졸업생, 학내기구 상담원, 외부상담기관 상담사, 병원진단서, 강사/교수 등
 다양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입증함

교수에 대한 징계 권고가 많아짐.
 인권위 결정, 소속대학의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소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짐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추후 법정진술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임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소송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사기록도 범원에 제출해야
 사실관계 입증 가능하여 참고인 보호와 적극적 소송 대처사이 딜레마임

<출처: 이수연, 대학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 개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여성가족부 및 인권위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2012)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2012>

피해자 : 학부생 > 대학원생, 행위자 : 학부생 > 교수 >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발생 장소 : 학외 유흥공간 > 도서관 등 학내공공장소 > MT, 수련회 등 숙박시설 > 강의실
 피해양상 :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가 가장 빈번, 강간/준강간도 발생

학생-학생간 사건이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 실제 사건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됨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2012>

대학 상담기구의 약 65%에서 상담 후 사건접수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음

피해사실 가시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 발생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2015. 10. 6>

한국 대학성평등 상담소협의회 기초조사(2015)

◎ 최근 진행한 상담내용

상담소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해결방법(신고처, 신고방법, 조사, 중재 등)에 대한 질의	51.2%
본인의 경험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의뢰	12.2%
상담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문의	15.9%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려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11.0%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식절차 요건에 대한 문의	9.8%

◎ 사건의 관계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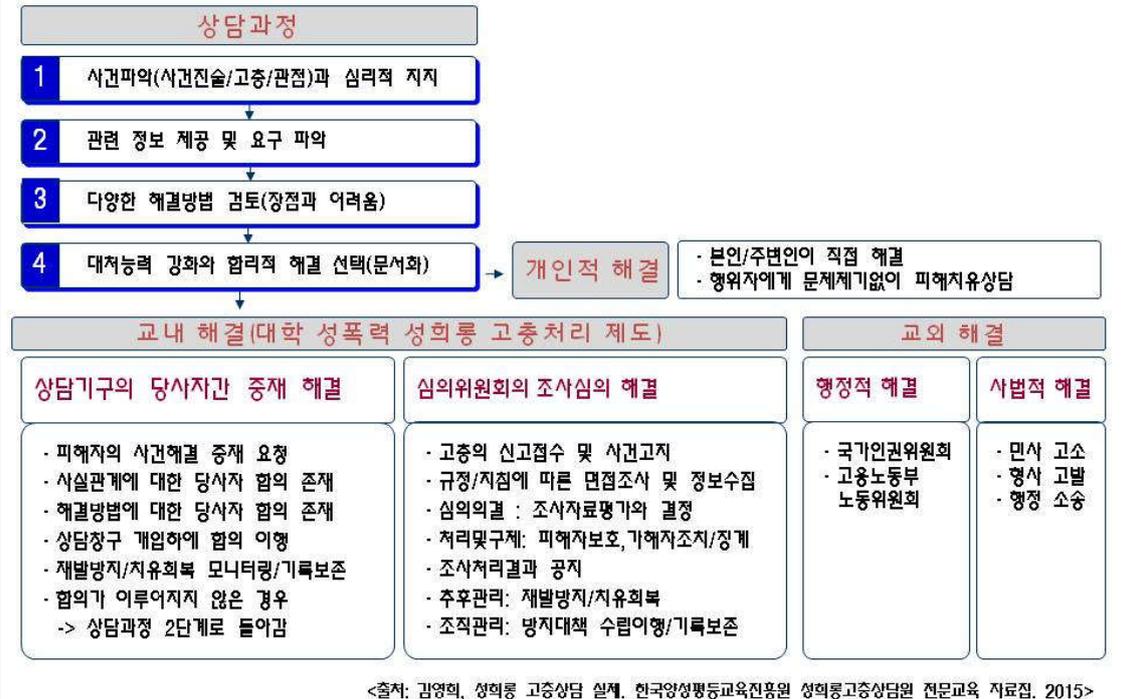
관계유형 (피신고인→신고인)	2013년~2015년 7월
1) 학생→학생	평균 (2.2)건, 최소 0건~최대 17건
2) 교직원→학생	평균 (1.4)건, 최소 0건~최대 4건
3) 교직원→교직원	평균 (0.5)건, 최소 0건~최대 1건
4) 기타	평균 (0.9)건, 최소 0건~최대 4건

◎ 사건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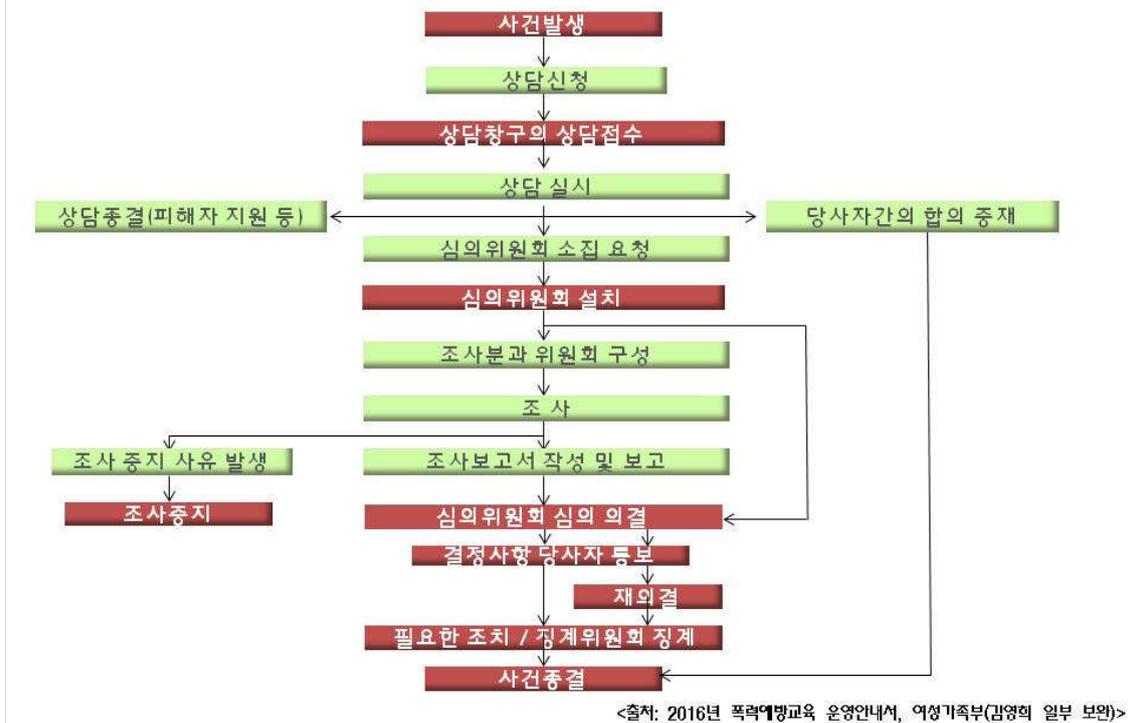
사건처리 유형	2013년~2015년 6월	
심의처리	1) 조사 후 징계 발의	(1.32)건, 0~5건
	2) 조사 후 징계 이외의 처분	(1.25)건, 0~6건
	3) 조사 후 기각(불인정)	(0.43)건, 0~3건
	4) 조사 후 중재	(0.83)건, 0~3건
	5) 조사 중단(신고인의 신고철회 등)	(0.78)건, 0~2건
	6) 기타	(0.50)건, 0~1건
중재처리	1) 내담자 요청에 의한 중재	(1.43)건, 0~8건
	2) 내담자 연락 중단에 의한 종결	(0.18)건, 0~1건
	3) 내담자 스스로 종결 요청	(0.74)건, 0~2건
	4) 내담자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	(0.47)건, 0~2건
	5) 기타	(0.94)건, 0~3건

<출처: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2015. 12>

성 피해 상담과정과 사건처리



대학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대학 내 사건 처리 핵심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

- 해당 사건을 성인지적 맥락/관점에서 판단
- 법률 및 규정지침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고려
- 사건당사자의 회복적 관점과 처벌적 관점 고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 피해상담과 심리지원
- 피해자 보호조치(접촉금지, 공간분리 등)
- 2차 피해 예방
- 피해자 안정치유회복(치유상담, 유고결석, 휴가 등)

신속·엄정한 사건처리

- 비밀유지 및 비공개원칙
- 피해자 중심주의
- 가해혐의자 의견청취
- 객관성 및 전문성 유지

행위자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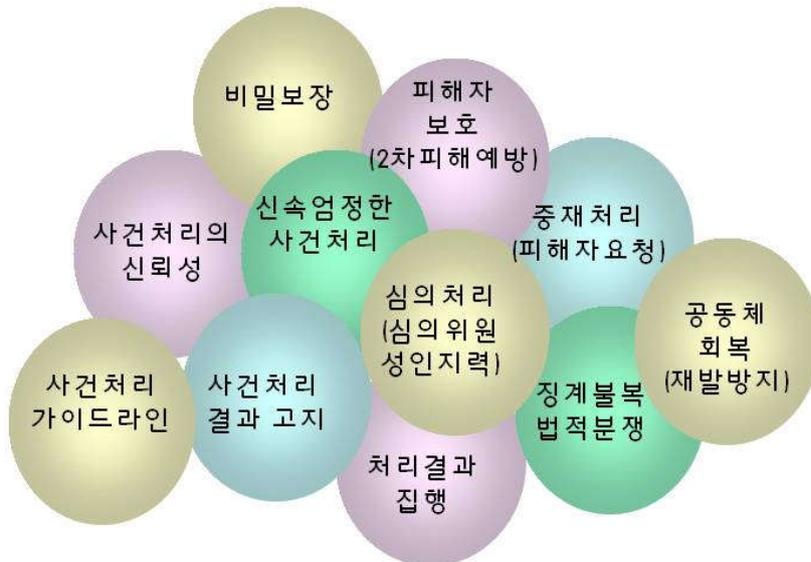
- 조치(직위해제, 경고, 주의, 전보, 사과문, 재교육, 사회봉사이수 등)
- 징계(견책~파면, 견책~출교)

방지정책 수립 이행

- 재발방지(공동체교육, 사건결과공지)
- 후속관리(사후관리, 후속조치)
-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

<출처: 김영희,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 실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자료집, 2015 >

대학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지원 및 사건처리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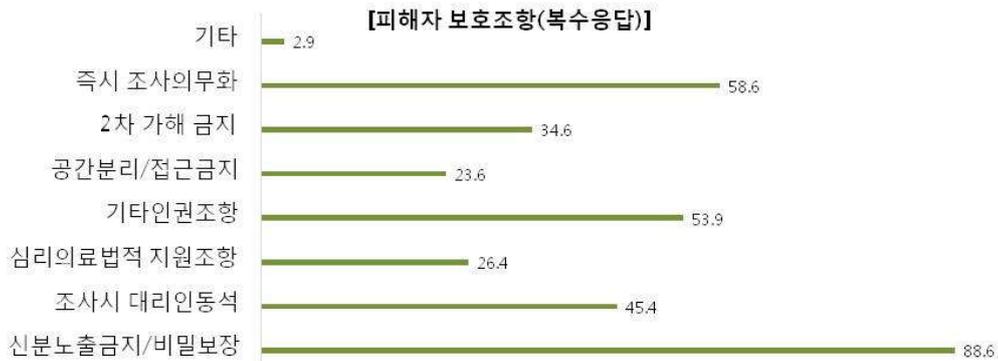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대학 규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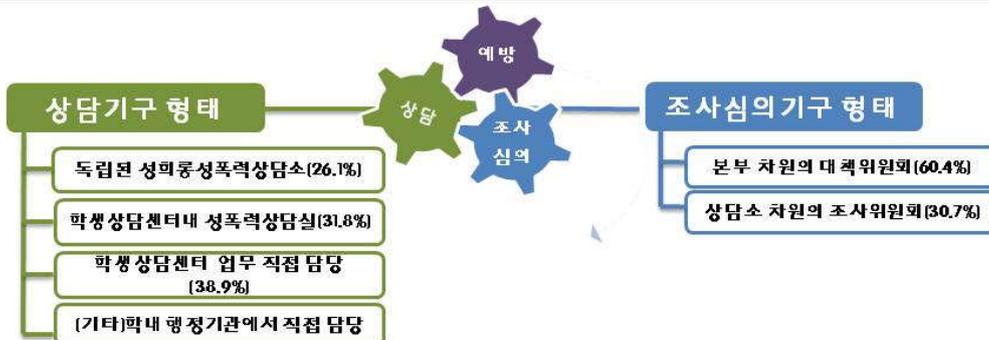
대학의 94%가 관련 규정 갖추고 있음

규정상 적용요건, 조사심의기구의 참여대상,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 등에서는 차이 보임
 피해자 보호조치 중 신분노출금지/비밀보장 조항은 대부분 포함,
 2차가해 금지, 심리·의료·법적 지원, 공간분리·접근금지 조항 포함은 낮은 비율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2015. 10. 6
 신상숙,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상담 기구 운영 현황 및 쟁점



상담기구가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 효과적인 피해구제의 주요 요건임

2011년 당시 상담건수가 0건인 대학이 40%, 상담과 사건조사 수행 대학이 1/4 에 불과
 → 규정에 명시된 피해구제 이용 가능성과 현실 사이 간극 존재

예산 및 시설공간 부족으로 인해 상담기구 활동의 제약의 문제점

상담기구 연간 예산 1천만원 미만 60%, 별도의 상담공간 부재 27%

실무 전문성, 업무 지속성, 고용 안정성, 담당자 소진 등 애로점

상담관련 별도 인원 배정 7%, 상담업무와 행정업무 병행 90%
 상담자적 보유 60%, 상담전문가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업무 지속성 낮음
 상담자 1인이 피해자 상담 및 행위자 상담/조사,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2015. 10. 6
 신상숙,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조사심의 현황 및 쟁점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처리 40%, 상담기구를 통한 중재처리(사과, 반성문, 재교육) 37%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중재 가능성이 고려됨

- 피해자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절차인 경우 유용,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요함
-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문제해결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경계 요함

심의처리 절차상 비밀보장 등 실질적 피해자 보호의 한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심의처리 이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의료지원, 법적지원) 지원 여부 고려됨

피신고인의 요구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 법적 분쟁 증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대응으로 상담기구(상담원 포함) 활동 위축

피해 지원 인력의 불안정한 지위, 짧은 근무기간 등으로 사건처리 실무 습득/전수의 어려움, 대학간 사건처리 관련 공유의 어려움, 교육기회 부족 등의 애로점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순환성으로 학내 낮은 인지도, 업무단절,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학내 지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소진 경험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2015. 10. 6
신상숙,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대학 내 현실적 문제점



<출처: 신상숙,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의 나아갈 방향

1. 국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1) 통합적인 근거법령 마련

◎ 고등교육법 개정

- 대학 특성 반영한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국가 및 교육기관 설립/경영자의 의무 규정,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의 근거 마련
- 학생은 성희롱·성폭력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명문화 포함
-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

◎ 근거법령에 따라 대학의 예방 및 방지조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구체사항을 훈령이나 예규 등의 형태로 마련

- 각 대학의 전담기구 확장과 예산확보, 전문상담인력 요건, 교육기회 제공 등 훈령/예규에 명문화하고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대학자체평가(기관평가인증)내용 및 필수 공시대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6 김영희, 대학내 성범죄 예방 등 대책방안,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 3. 25>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의 나아갈 방향

2) 국가의 관리/지원 주무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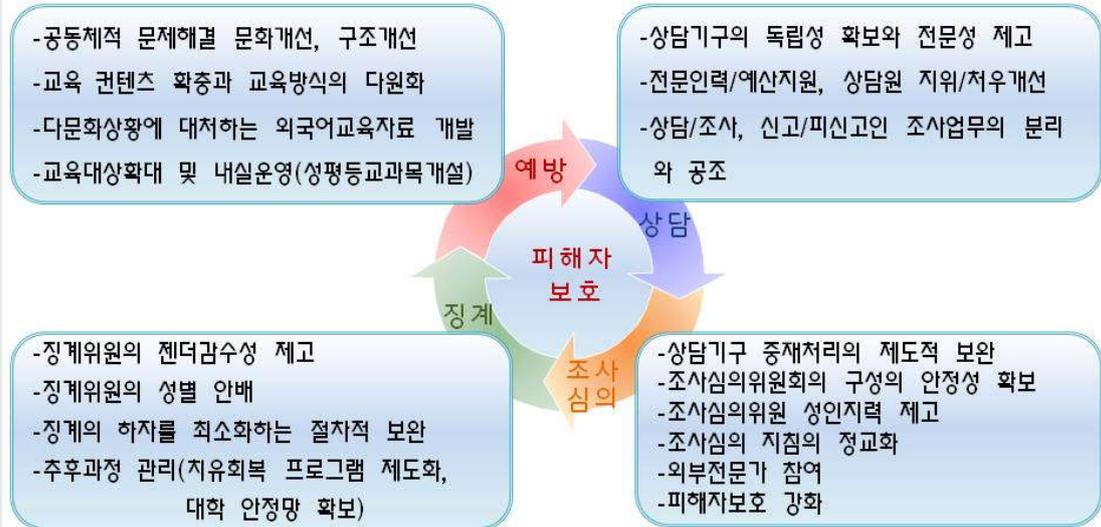
◎ 교육부내 대학의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여성가족부와 협력)

- 대학 성희롱·성폭력 및 구제조치에 대한 대학총장/경영주의 책임을 명시, 위반시 처벌이나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중단과 같은 제재조치를 관련 근거 마련
- 대학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상담 및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 대학당국이 성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 교육부 정책적으로 상담 및 고충처리기구를 총장 및 부총장 직속으로 둘 것을 권고
-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인의 전문적인 전담인력을 정규직제로 영입하는 등의 모든 대학 규칙은 대학 내 모든 유형의 성적 침해에 대해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교육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행위자 관계, 피해유형에 따른 교육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매뉴얼과 지침서 제작배포
 - 성희롱·성폭력 관련 민/형사상 판례, 각종 결정례, 대학별 징계와 조치 사례까지 포함한 포괄적 징계 양형기준 마련. 이를 통해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고 대학측이나 피해자 개인의 부담 감소
- 대학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폭력예방 등 폭력예방 실적 관련 배점표를 재검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의 보완 등 대학 현실에 맞는 성희롱 방지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적보고 시스템 마련.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 대학 상담기구들이 사건처리에 대한 운영 및 정보를 교류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소진예방을 지원

<출처: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6 김영희, 국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및 제언, 2015년 성폭력추방기간 심포지엄, 여성가족부, 2015. 11 >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의 나아갈 방향

2. 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체계 구축



<출처: 대학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학술포럼, 2015. 6. 1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개선 정책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6>



2부 토론

- 취지

여성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목회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현장에서 여성이 구조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차별 상황에 처해있다. 신학교육의 지도력은 여전히 남성신학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여성신학 수업은 수강인원이 없어 폐강되거나, 여성들만을 위한 특수교육처럼 취급받기도 한다.

최근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 송년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신학자를 강의에서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동시에, 유일했던 여성학 교양 강의와 평생교육원 강좌 역시 폐지되었다.

일부 교단에서는 전통과 교리를 이유로, 여자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신념화하고 있다. 여성안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여성목회자들은 남자목회자들 중심의 구조 속에서 늘 주변인으로 취급받는다.

성인식이 개선되고, 일상적 관계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화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의 문제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차별에 길들여져 살아왔다. 목회자 양성과정이나 교회 현장에서 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와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본다.

- **사회자:** 최소영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 **패널:** 발제자 2인

 - 김성수 목사(예드림교회, 호모북커스 대표)

 - 이성지 회장(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 임하나 회장(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여학생회)

 - 조은애 회장(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여학우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소개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MISSION
MISSION

이를 위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
교회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상담**,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이슈파이팅**,
정관 및 재정조례 보급, 목회자 청빙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개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story
story



‘신학대학원 성윤리 교육의 현실과 방향성’ 포럼

발행일 | 2016년 4월 26일
발행인 |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편집인 | 김애희
편 집 | 이연정
발행처 | 교회개혁실천연대
(150-034)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Tel 02-741-2793 Fax 02-741-2794
protest@protest2002.org
www.protest2002.org